

한국형 교우기대감 척도 개발 연구*

남 경 옥**

단국대학교 특수교육과 강사

신 현 기***

단국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

《 요 약 》

이 연구는 학교에서 친구를 사귀는 때 중요시 여기는 심리적 속성들을 측정하는 한국형 교우기대감 척도의 개발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문헌탐색을 통한 예비범주와 세부문항들을 확보하였다. 그런 후 초3, 초6, 중3 학생 325명을 대상으로 교우기대감 진술문 2,679개를 수집하였다. 이 진술문들은 2단계 코딩과정을 포함한 일련의 문항제작 과정들을 거친 후 내용타당도 검증을 통해 본 조사용 예비척도로 사용하였다.

본 조사용 예비척도를 사용해 1,027명의 일반학생들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탐색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3요인 21문항의 한국형 교우기대감 척도를 완성하였다.

완성된 척도에 대해서는 문항내적합치도, 각 문항 삭제 시 문항내적합치도, 문항변별도 자료를 통해 신뢰도를 확보하였으며,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구성타당도 정보를 제공하였다.

이렇게 개발된 척도는 우리나라 일반아동의 교우관계에 관련된 심리적 속성을 측정한다는 학술적, 실제적 가치와 더불어 통합환경에서 일반아동과 장애아동의 사회적 통합을 위한 중재 프로그램 수립 시 방향성 제공과 함께 사회적 통합을 평가하는 지표의 일부로 사용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특수교육 분야에서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끝으로, 기존척도들과 본 척도의 비교, 척도 제작과 활용 관련한 논의와 제한점 및 제언을 제공하였다.

주제어 : 교우기대감, 척도개발, 사회적 통합, 문항개발, 요인분석

* 이 연구는 제1저자의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를 수정, 보완한 것임.

** 제1저자, 교신저자(usu1994@hanmail.net)

*** 제2저자(shinkiha@dankook.ac.kr)

1. 서론

아동이 가정을 벗어나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비슷한 연령의 또래를 일컬어 흔히 친구라 부른다. 과거와 달리 요즘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친구가 될 또래들을 처음 접하게 되고, 취학연령에 도달해서는 학교에서 비교적 장기적으로 친구관계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를 한자어로는 교우(校友)라 한다.

일반적으로 교우관계는 아동의 발달과 환경과의 관계 등 복잡하고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는데, 교우는 아동에게 안정과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며 일생을 통해 개인의 복지와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Sullivan, 1953; Hartup & Stevens, 1997).

이러한 교우관계의 역할과 중요성은 장애아동이라 해서 다를 수 없음은 주지의 사실인데 통합교육이 실시되면서 특히 장애아동과 일반아동 간 교우관계가 강조되어 왔다. 양자 간의 바람직한 교우관계는 통합교육의 당위성을 구성하는 하나의 근거가 되는 물론이고 장애인과 일반인이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수용됨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들 중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Bercovici, 1981; Guralnik, 1981; McKinney, Fitzgerald, & Strommen, 1982).

교우관계의 중요성에 비추어볼 때 사회인지 분야의 교우관련 연구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사회인지 분야에서는 개방형 질문들과 반구조화된 면접을 통해서 서로 다른 연령대의 아동들이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연구해 왔는데, Bigelow(1977, 1983)는 ‘한 인간이 자신의 친구를 사귀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여기는 믿음, 태도, 가치, 행동에 대한 표현’으로 교우기대감(Friendship Expectation)을 정의하였고, 인지발달의 양상과 연계한 사회인지의 한 영역으로서 교우기대감을 개념화한 바 있다(Bigelow, 1977; Bigelow & La Gaipa, 1980; La Gaipa, 1979).

구체적으로 교우기대감을 측정하는 기존의 도구들을 살펴보면, Furman과 Bierman(1984)의 우정개념 측정 척도(Friendship Measures Task)는 친구에 대하여 중요시하는 속성들을 파악하기 위한 도구로서, 행동적 그리고 심리적 영역으로 구성되며 각 영역에 동일하게 유사성(Similarity), 애정(Affection), 지원(Support), 친밀성(Intimacy), 관계(Association)의 5개 범주를 설정하여 총 18문항을 이루어져 있다. 또한, Han(2004)의 중학교 우정설문 수정판(Middle School Friendship Survey-Revised)은 선행문헌을 바탕으로 전문가의 내용타당도 검증을 통해 개발되었는데, 동질성, 기능/능력, 외모/특성으로 구성된 개인특성(Individual Characteristics) 범주, 교내 활동과 교외 활동으로 구성된 공유활동(Shared Activities) 범주, 그리고 친구 사이의 정의적 속성과 관계적 특성을 나타내는 관계특성(Relationship Characteristics)

범주로 나뉘며, 총 31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교우기대감 척도의 문항들은 주로 외적 속성들과 내적 성향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는데, 아동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아동이 중요시하는 영역에 변화가 일어나며, 성별에 따라서도 중요시하는 영역이 다르다고 알려져 있다(Bigelow, 1977; Bigelow & La Gaipa, 1980; Han, 2003).

또한, 대부분의 교우기대감 관련 연구들이 일반교육의 장에서 수행된데 비해 Han(2003) 그리고 Han과 Chadsey(2002)의 연구는 일반학생이 장애학생에 대하여 갖는 기대감을 조사한 것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이 연구들에서는 일반학생들과 중도장애를 가진 학생들 사이에 일부 형태의 친구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일반학생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장애아동에 대한 교우기대감'에 성 및 학년 차이가 발생함을 보고하였다.

국내에서도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교우관계 관련한 조사연구들은 상당량 축적되어 있다(권오정, 2000; 김나미, 2005; 박완희, 1999; 변민희, 1998; 성기영, 2001; 천홍숙, 2008; 한주환, 2001). 그러나 이 연구들의 중심개념은 친구관계의 질 혹은 기능, 우정개념, 교우형성 요인, 교우선호요인 등으로서 교우기대감 연구와는 연구목적과 연구방법에서 약간의 차이가 존재한다. 특수교육 분야 역시 통합상황에서 장애아동과 일반아동 간 교우관계를 조사한 연구들(김완희, 2001; 전준, 신현기, 2007; 문선영, 2008)이 있지만, 이들도 기존의 일반아동 대상 연구들과 유사한 형태를 보였다.

본 연구와 같이 교우관계에서 일방의 주관적 인식에 초점을 둘 경우 기존의 교우관계 관련연구와 거기서 사용된 척도들에서 보이는 접근성 요인처럼 물리적이면서도 스스로 선택하기 어려운 영역 그리고 친구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현상들 중 하나인 친구관계의 부정적 측면 등은 제외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한데, 이는 기존의 외국의 교우기대감 척도들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수교육 분야에서 본 척도 개발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척도가 측정하는 심리적 속성의 의미와 척도의 활용방법에서 찾을 수 있다. 그간 일반아동의 장애아동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척도로는 가장 오래되고 널리 알려진 Yuker의 Attitude Toward Disabled Persons Scale(1960), 그리고 Voeltz의 Acceptance Scale(1980), Tringo의 Disability Social Distance Scale(1970)을 비롯하여 다수가 이용되어 왔다. 그러나 이 척도들이 주로 주변의 장애를 가진 이들에 대한 평정자의 인식과 태도를 측정하는 것인데 반해, 본 척도는 평정대상에 대하여 친구라는 관계를 상정하여 그러한 관계가 됨에 있어서 평정자가 품게 되는 심리적 속성들을 측정할 수 있어, 기존의 장애아동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척도들과는 차이가 있다.

또한 이 척도의 활용방법을 고려해보면 통합교육 현장의 사회적 통합을 증진시키는 데 일조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동발달 및 심리학 분야의 선행연구들에서는

최근까지도 교우기대감 연구가 발달에 따른 변화, 성별 차이, 가상 및 실제 친구에 따른 차이, 동성친구에 대한 기대감, 문화권에 따른 차이 등에 집중하였는데(Fehr, 2004; Gonzalez, Moreno, & Schneider, 2004; Hall, Larson, & Watts, 2009; Zarbatany, Conley, & Pepper, 2004), 특수교육 분야에서는 추가적인 활용 가능성이 존재한다. 예를 들면, 본 척도를 통해 일반아동이건 장애아동이건 장애를 갖지 않은 친구를 사귄 때의 기대감을 파악하는데 사용할 수 있고, 이와 더불어 장애를 가진 아동에 대한 교우기대감을 평정토록 하면 일반아동을 사귄 때와 장애아동을 사귄 때 기대하는 심리적 속성들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 그 차이의 수준과 요인들을 비교, 분석하면 일반아동과 장애아동이 친구관계로 발전해 나아감에 있어서 주목해야 할 점들이 무엇인지 알 수 있으며, 그러한 차이점을 중심으로 사회적 통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및 사회적 환경 구성에 지침을 제공해 줄 수 있게 된다. 또한 그러한 심리적 속성의 차이 비교는 본 척도가 통합환경에서 사회적 통합에 대한 성과 지표들 중 한 부분인 교우관계에 대한 시금석 역할을 할 수 있기에 본 척도가 특수교육 분야에서 공헌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특수교육 분야에서 본 척도의 활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연구자가 계획단계에서부터 주안점으로 둔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척도 문항들을 구성할 때 기초가 되는 자료는 국내외의 선행문헌이 아닌 우리나라 아동들로부터 직접 추출하여 우리나라 아동들의 심리적 속성들이 그대로 드러날 수 있게 시도했다. 둘째, 교우기대감 척도들 중 Han과 Chadsey(2004)의 척도는 최초 문항 개발 단계에서부터 ‘장애아동을 친구로 사귄 때의 기대감’을 측정하는 도구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지만, 본 척도의 문항들은 장애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친구를 사귄 때의 기대감을 측정하는 문항들을 구성함으로써 일반아동을 친구로 사귄 때와 장애아동을 친구로 사귄 때의 두 경우를 직접 비교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셋째, 본 척도 제작을 위한 자료를 초등학교 3학년과 6학년, 중학교 3학년 아동들로부터 수집함으로써 아동기에서 청소년 초기에 이르기까지 발달에 따른 교우기대감의 변화를 손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시도했다.

위에서 언급한 본 척도 개발의 필요성과 목적 그리고 활용방안을 고려하여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한국형 교우기대감 척도를 구성하는 문항들은 무엇인가?
2. 한국형 교우기대감 척도의 신뢰도는 어떠한가?
3. 한국형 교우기대감 척도의 타당도는 어떠한가?

II. 연구 방법

교우기대감 척도를 개발하는 과정은 최초 문헌탐색을 통해 예비 요인 및 문항을 확보하는 것으로부터 개방형 설문을 통한 세부항목 추출, 세부항목들을 바탕으로 한 예비척도 구성, 본 조사를 통한 척도완성과 신뢰도 및 타당도 확보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각 단계별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예비 요인 및 문항 확보

교우기대감 척도 제작을 위해 먼저 선행연구, 특히 우정 관련 척도들을 검토하여 교우기대감의 예비요인들과 각 요인별 세부문항들을 구성하였다.

예비 요인 및 문항을 구성한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는 본 연구를 통한 척도 제작 시 개방형설문을 통해 수집된 진술문들을 분류할 때 임시 범주틀로써 활용하기 위해서이다. 둘째는 예비척도를 사용하여 수집한 본 조사 자료들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시 최종결과를 도출할 때까지 각 요인으로 묶이는 문항들의 해석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참조틀로 활용하기 위해서이다.

예비 요인 및 문항에 포함된 기존의 우정 관련 척도로는 첫째, Furman과 Buhrmester(1985), Mendelson과 Aboud(1999)의 연구를 토대로 이은혜와 고운주(1999)가 친구관계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 구성한 척도 중 긍정적 기능에 대한 6개 영역(교제의 즐거움, 도움, 친밀감, 신뢰, 인정, 정서적 안정) 30문항, 둘째, Furman과 Bierman(1984)의 우정개념 측정 척도(Friendship Measures Task)의 5개 영역(지지, 친밀감, 유대감, 유사성, 애정) 18문항, 셋째, Han(2003)의 중학교 우정설문 수정판(Middle school Friendship Survey-Revised) 9개 영역 24문항을 참조하여 유사한 문항끼리 묶어 임시 범주틀을 완성하였다.

2. 세부항목 추출

1) 개방형 설문조사

(1) 대상

개방형설문은 수도권외 일반 초, 중학교 각 한 곳에서 3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응답자 구성은 <표 1>과 같다.

〈표 1〉 개방형 설문조사 응답자 구성

학년	성별		전체
	남자	여자	
초3년	71	49	120
초6년	49	48	97
중3년	55	53	108
전체	175	150	325

대상 학년을 이와 같이 선정한 이유는 이 연령대가 Sullivan(1953)이 제시한 사회적 욕구 발달단계의 아동기, 청년 이전기, 청년기 초기에 해당되므로 척도 완성 시 발달단계에 따른 교우기대감의 차이를 손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2) 설문지 구성 및 절차

교우기대감 척도를 개발하기 위한 개방형 설문은 연구자가 직접 고안한 구조화된 양식을 사용하였다. 최초에는 단순히 하나의 문항(교우를 사귄 때 중요하게 여기는 점은 무엇인가?)으로 시작했으나 초, 중학생 10명에 대한 1차 예비조사과정에서 한, 두 가지 단어나 구로 응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진행자의 안내(예, “보통 친구들 사이엔 ○○한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잖니!”)에 과도하게 영향을 받은 응답들이 나타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그리하여 흥미를 유발하면서도 목적에 부합하는 다양한 응답들을 유도하고, 설문 진행자 혹은 설문지의 안내에 얽매이지 않도록 문항들을 수정해 나아갔다. 새로 구성된 설문지 문항들은 연구자가 친구관련 인식조사 연구들(권오정, 2000; 정경미, 1991)에서 사용한 질문들을 참고한 것으로, 아래와 같은 다섯 가지 차원의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믿음: 학급에서 친구를 사귄 때 중요하게 여기는 점은 무엇인가요?

태도: 학급에서 친구가 어떤 행동을 보일 때 진정한 친구라고 느껴지나요?

가치: 학급에서 친구 사이에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기대: 학급에서 나는 어떤 사람을 친구로 사귀고 싶어 하나요?

이유: 가장 친한 교우 ○○○을 떠올린 후, 좋아하는 이유를 말해보세요.

위의 문항으로 초, 중학생 12명에게 실시한 2차 예비조사에서도 학생들은 단순히 ‘우정’이나 ‘의리’ 같은 짧은 단어들을 나열하는 경우가 많아 최종 설문지에는 응답의 <나쁜 예>와 <좋은 예>를 표지에 제시하여 구체적인 행동진술문 형식으로

기술할 수 있게 유도하였다. 또 사용된 용어들은 대상 학생들 중 가장 낮은 연령대인 초등학교 3학년생들이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한자용어나 추상적 용어를 수정하여(예, 학급 → 반, 급우 → 반 친구, 중요한 점 → 중요한 행동이나 모습) 최종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질문지 양식은 순서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문항순서를 서로 다르게 하여 세 버전을 준비했으며, 각 버전의 자료가 학년별로 동수가 수집되도록 하였다.

개방형설문은 주로 특활시간을 이용하여 약 30~40분 정도에 걸쳐 실시되었다.

2) 세부항목 추출

개방형 설문조사에서 수집된 진술문들은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해 전사한 후 세부항목 추출을 위해 2차례에 걸친 코딩작업을 수행하였다. 1차 코딩은 앞서 문헌탐색을 통해 구성된 임시 범주틀을 활용하여 수집한 진술문들을 분류하는 작업이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4인의 특수교육 전공 대학원생들에게 개방형 설문 코딩 매뉴얼을 배포하고 약 30분 정도의 사전교육을 실시하였다. 일인당 약 500여개의 진술문들을 독립적으로 분류하였는데, 이때 대학원생 4인은 각자 최초 100개의 진술문에 대하여 제 1연구자와 코딩 일치도(일치도=일치한 코딩 수/(일치한 코딩 수+불일치한 코딩 수))를 산출한 후(각 88.1%, 82.4%, 79.0%, 82.5%), 일치하지 않은 진술문들에 대해서는 논의과정을 통해 일치시키는 과정을 거쳤고, 나머지 진술문들은 독립적으로 코딩을 하였다.

이어서 연구자가 세부항목들을 문항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각 항목들을 문장형식으로 구성하였다. 문장 구성 시 초등 3학년생들에게도 의미를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초등학교 3학년생 3인과 현장교사 3인의 검토를 거쳤다. 이어서 2차 코딩을 실시하였는데 위 과정을 통해 구성된 문항들을 다시 범주별로 유사 진술문들을 통합하여 의미를 대표할 수 있는 진술문으로 수정하고 추상적 진술문들은 제거하는 2차 코딩을 실시하였다.

3. 예비척도 구성

이렇게 도출된 예비척도는 전문가(특수교육과 교수, 특수교육 박사학위 소지자) 5인과 현장의 특수교사 12인에게 각 문항별 문항이해도, 문항적절성, 범주적합성에 대한 3점 Likert 평정(0점: 부적절, 1점: 보통, 2점: 적절)과 평정가능성에 대한 2점 Likert 평정(0점: 불가, 1점: 가능)을 의뢰하였다. 설정한 기준 이하의 낮은 평정을 받은 문항들은 제거하였고, 문항별 의견을 개진토록 하여 논의 후 최종적으로 본 조사용 예비척도(10범주 46문항)를 완성하였다.

4. 본 조사 및 자료 분석

1) 본 조사

예비척도를 적용한 본 조사는 대상연령과 성비를 고려하여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수도권 내 초등학교 3곳과 중학교 2곳의 일반학생 1,027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응답은 5단계 Likert 방식(1점: 전혀 중요하지 않음, 2점: 중요하지 않음, 3점: 보통, 4점: 중요함, 5점: 매우 중요함)의 평정을 요구하였다.

<표 2> 예비척도 응답자 구성

학년	성별		전체
	남자	여자	
초3년	183	161	344
초6년	198	209	407
중3년	128	148	276
전체	509	516	1,027

2) 자료 분석

수집한 46문항에 대한 평정자료는 문항별로 평균과 표준편차를 검토한 후, 상관분석을 통해 음의 상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상관, 그리고 유의확률 .2보다 작은 상관을 갖는 10문항을 삭제하고 남은 36문항의 자료를 탐색적 요인분석의 대상으로 결정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과정을 통해 최종 척도의 요인과 문항들을 도출하였고, 전문가 협의와 함께 임시 범주들의 예비범주와 문항 자체의 의미를 고려하여 각 요인들을 명명하였다.

척도의 신뢰도 정보로는 문항내적합치도(Cronbach's α)와 문항변별도를 구하여 제시하였고, 타당도 정보는 각 요인 간 상관과 함께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구성타당도 정보를 제시하였다. 미지수 추정은 최대우도추정법(maximum likelihood method)을 사용하였으며, 모형의 적합도 추정치들을 통해 이론모형이 표본자료와 얼마나 잘 합치되는지 살펴보았다.

Ⅲ. 연구 결과

1. 예비요인 탐색결과

교우기대감의 이론적 구성개념 파악 및 코딩을 위한 참조틀 도출을 위해 문헌탐색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도출한 임시 범주들은 <표 3>과 같이 총 10개의 예비요인과 51개의 세부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표 3> 임시 범주들

예비요인	세부 문항
1. 친밀감	나의 개인적인 얘기를 할 수 있다. 나를 잘 이해해 주는 친구. 내가 기분 나쁠 때 알아챈다. 관심을 가져준다(말을 건네준다). 비밀을 이야기 할 수 있는 사이이다. 내가 어떤 일로 괴로워할 때 이를 안다. 쉽게 개인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어떤 일들에 대한 느낌을 서로 얘기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서로 믿고 신뢰하는 것이 중요하다. 싸우지 않는다, 심한 장난도 받아준다.
2. 지원	내가 필요로 할 때 도와준다. 내가 필요한 것을 빌려준다. 어떤 일을 어떻게 하면 더 잘 할 수 있는지 가르쳐준다. 서로 나누고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로에게 의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3. 충실성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아도 내 친구로 남아있을 것이다. 뒤에서 욕하지 않는다. 나와 싸우더라도 여전히 나의 친구이기를 원할 것이다. 의리있는 친구. 상대에게 충실하고 서로 유리하게 얘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원할 때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4. 유사성	나와 (성격, 취미, 의견, 생각 등)이 잘 맞는다. 동일한 것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같은 성(sex)인 것이 중요하다. 같은 수업을 듣는 지가 중요하다.
5. 공유 활동	학교에서 나와 스포츠 혹은 게임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와 같이 학교과제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쉬는 시간에 나와 얘기를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 방과 후 나와 스포츠나 게임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6. 정의성	내가 겁먹을 때 내 곁에 있어주면 좋을 것이다. 내게 걱정이 생기면 안심시켜 줄 것이다. 내가 속상할 때 위로해준다. 서로 좋아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상대가 어떤 일을 잘 못할 때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 중요하다. 서로를 존중하고 상대가 멋지다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7. 인정	나를 특별하다고 느끼게 해 준다. 내가 어떤 것을 잘하면 칭찬해 준다. 내가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도록 해준다.
8. 기능/능력	운동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얼마나 똑똑한지가 중요하다.
9. 외모/성향	멋진 옷을 입는 것이 중요하다. 단정한, 착한, 잘 웃는, 밝은, 행동이 올바른, 친절함, 예의바른, 공손한, 배려하는, 바른 말을 쓰는 친구. 재미있는 친구여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매력적인 것이 중요하다. 나를 즐겁게 해준다.
10. 동반자 관계	다른 친구들도 내 친구를 좋아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 친구들 집단에 속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의 다른 친구들과 함께 놀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2. 세부항목 추출결과

개방형 설문조사 결과, 총 2,679개의 진술문이 수집되었다. 1차 코딩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범주별로 살펴보면, 동반자 관계 범주와 인정 범주에 해당되는 진술문이 10개 미만이어서 타 범주에 비해 빈도가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나머지 8개 범주에서는 학년과 성별로 진술문 자료가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이후 분석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구성될 척도의 문항들이 특정 학년이 나 성에 한해서만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님을 의미한다.

수집된 진술문들 중 의미모호/장난 글, 무관한 내용, 중복의미에 해당하는 504개는 삭제하였으며, 이후 분석에는 임시 범주 10개에 해당되는 2,175개의 진술문만을 사용하였다.

<표 4> 개방형 설문자료 집단별 분포(빈도 및 비율)

임시 범주	초등학교 3학년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합 계 n = 325
	남 (n = 71)	여 (n = 49)	남 (n = 49)	여 (n = 48)	남 (n = 55)	여 (n = 53)	
1. 친밀감	47(8.5)	27(7.0)	55(12.6)	67(15.5)	56(13.1)	98(22.1)	350(13.1)
2. 지원	88(15.9)	56(14.4)	25(5.7)	32(7.4)	17(4.0)	16(3.6)	234(8.7)
3. 충실성	25(4.5)	21(5.4)	21(4.8)	40(9.3)	25(5.8)	29(6.5)	161(6.0)
4. 유사성	20(3.6)	13(3.4)	44(10.1)	32(7.4)	41(9.6)	63(14.2)	213(8.0)
5. 공유활동	37(6.7)	13(3.4)	26(6.0)	8(1.9)	9(2.1)	9(2.0)	102(3.8)
6. 정의성	16(2.9)	24(6.2)	18(4.1)	26(6.0)	16(3.7)	22(5.0)	122(4.6)
7. 인정	1(0.2)	2(0.5)	0(0.0)	1(0.2)	0(0.0)	1(0.2)	5(0.2)
8. 기능/능력	48(8.7)	31(8.0)	28(6.4)	11(2.6)	16(3.7)	4(0.9)	138(5.2)
9. 외모/성향	157(28.4)	121(31.2)	153(35.1)	141(32.7)	153(35.7)	118(26.6)	843(31.5)
10. 동반자 관계	0(0.0)	1(0.3)	1(0.2)	4(0.9)	0(0.0)	1(0.2)	7(0.3)
의미모호/장난	72(13.0)	36(9.3)	40(9.2)	30(7.0)	60(14.0)	32(7.2)	270(10.1)
무관내용	21(3.8)	22(5.7)	16(3.7)	19(4.4)	17(4.0)	11(2.5)	106(4.0)
의미중복	20(3.6)	21(5.4)	9(2.1)	20(4.6)	18(4.2)	40(9.0)	128(4.8)
합 계	552(100)	388(100)	436(100)	431(100)	428(100)	444(100)	2679(100)

2,175개의 진술문들 중 문헌탐색을 통해 도출한 예비범주에 속하지 않는 내용들은 없었으며, 도출된 10개 범주의 96개 세부 항목들은 <표 5>과 같다.

<표 5> 개방형 설문 임시범주 및 세부 항목 추출결과

임시범주	세부 항목
1. 친밀감	개인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 고민을 나눌 수 있는 것, 기분을 잘 알아주는 것, 나에게 관심을 갖는 것, 나에게 먼저 다가오는 것, 나의 마음을 잘 이해해 주는 것, 나의 장난을 잘 받아주는 것, 얘기를 잘 들어주는 친구, 말동무가 되어주는 것, 먼저 말을 걸어주는 것, 먼저 인사를 건네는 친구, 비밀을 털어놓을 수 있는 것, 서로 사이 좋게 지내는 것, 서로 신뢰할 수(또는, 믿을 수) 있는 것, 서로 정이 있어야 함,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것, 친하게 지낼 수 있는가 하는 것, 서로 챙겨주는 마음, 싸우지 않는 것
2. 지원	갖고 싶은 걸 사주는 것, 공부를 가르쳐 주는 것, 돈을 잘 빌려주는 것, 먹을 것을 나눠주는 것, 모르는 것이 있을 때 가르쳐 주는 것, 못가져 온 준비물을 기꺼이 빌려주는 것, 아프거나 다쳤을 때 도와주는 것,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와주는 것, 힘들 때 도와주는 것
3. 충실성	기다렸다가 같이 가주는 것, 나에게 반대하지 않는 친구, 나와 같은 편이 되어주는 것, 뒤에서 욕하지(뒷담화) 않는 것, 배신하지 않는 것, 서로에게 충실한 것, 싸워도 먼저 사과하는 것, 서로 간의 비밀을 잘 지키는 것, 절교하지 않는 것(우정을 지속하는 것), 친구 간에 의리를 지키는 것, 친구를 의심하지 않고 믿어주는 것, 친구의 잘못된 점은 고쳐주려 하는 것, 친구의 잘못을 감싸주는 것
4. 유사성	같은 성(SEX)인 것, 관심분야가 같은 것, 마음/성격이 서로 통하는 것, 생각/의견이 비슷한 것, 서로 호감이 잘 맞는 것, 예전부터 함께 해왔던 것, 외모(키/인물)가 나와 비슷한 것, 좋아하는 게임/운동/취미가 같은 것, 좋아하는 연예인이 같은 것, 학력/경제적 수준이 비슷한 것
5. 공유 활동	같이 어울려 노는 것, 방과 후 같이 놀 수 있는 것, 심심할 때 같이 놀아주는 것, 어디(예, 집, 학원)를 함께 다니는 것, 함께 게임을 하는 것, 함께 공부하는 것, 함께 음식을 먹는 것, 함께 할 시간이 많은 것
6. 정의성	슬프거나 힘들 때 위로/격려해주는 것, 좋은 일에 같이 기뻐해주는 것, 진심으로 친구를 걱정해주는 것, 진정으로 나를 좋아하는 것, 친구를 존중해 주는 것
7. 인정	친구를 인정해주는 것, 칭찬을 많이 해주는 것
8. 기능/능력	공부를 잘하는 것, 글씨를 예쁘게 쓰는 것, 똑똑한 것, 싸움을 잘하는 것, 운동을 잘하는 것, 인기가 많은 것, 재능(예술, 손재주 등)이 있는 것, 조리있게 말을 잘하는 것
9. 외모/성향	겸손한 태도를 보이는 것, 때리지 않는 것, 마음씨가 착한 것, 말과 행동이 재미있는 것, 멋진 모습인 것, 밝고 긍정적인 태도인 것,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 성격/행동이 활발한 것, 성격이 밝아 잘 웃는 것, 성실한 것, 약속을 잘 지키는 것, 양보를 해주는 것, 얼굴이 잘생긴/예쁜 것, 예의를 지킬 줄 아는 것, 옷차림/외모가 단정한 것, 욕설을 하지 않는 것, 유머감각이 있는 것, 친절할 태도인 것
10. 동반자 관계	다른 친구들과 잘 어울리는 교우, 친구들과 사이에서의 평판, 나의 다른 교우관계 역시 중요시하는 친구

3. 예비척도 구성결과

다음으로 2,175개의 세부항목들을 연구자가 진술문 형식으로 구성한 다음 각 범주 내에서 서로 유사한 의미를 지닌 진술문들을 합치고 추상적 진술문을 제거하는 2차 코딩과정을 실시하여 <표 6>과 같이 10개 임시범주에 65개의 세부 문항들을 추출하였다.

<표 6> 예비척도 임시 범주 및 문항

번호	임시범주	세부 문항
1	1. 친밀감	내 친구와 나는 비밀이나 고민거리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2		내 친구는 내게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한다.
3		내 친구는 항상 내 기분이나 마음을 잘 알아주어야 한다.
4		내 친구와 나는 서로 관심을 갖고 챙겨주어야 한다.
5		내 친구는 나에게 먼저 다가와 말을 걸고 인사해야 한다.
6		내 친구는 내가 심하게 장난을 쳐도 잘 받아 주어야 한다.
7		내 친구는 항상 내 말을 귀담아 들어주는 말동무이어야 한다.
8		내 친구와 나는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
9		내 친구와 나는 서로 믿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10		내 친구와 나는 서로 정답게 지낼 수 있어야 한다.
11	2. 지원	내 친구는 내가 갖고 싶은 물건을 사줄 수 있어야 한다.
12		내 친구는 내가 모르는 것이 있을 때 잘 가르쳐줄 수 있어야 한다.
13		내 친구는 내가 돈이 없을 때 기꺼이 빌려주어야 한다.
14		내 친구는 내게 먹을 것을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한다.
15		내 친구는 내가 깜빡 잊은 준비물을 빌려주어야 한다.
16		내 친구는 내가 아프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나를 도와주어야 한다.
17	3. 충실성	내 친구는 내가 학교에서 어떤 일로 집에 못가면 기다려 줘야 한다.
18		내 친구는 내 말이나 주장에 반대하지 말아야 한다.
19		내 친구는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어야 한다.
20		내 친구는 내 뒤에서 내 욕이나 험담을 하지 말아야 한다.
21		내 친구는 나에게 언제나 같은 모습으로 대해주어야 한다.
22		내 친구는 나와 싸우는 일이 생겨도 먼저 와서 사과해야 한다.
23		내 친구는 나와 비밀을 잘 지켜야 한다.
24		내 친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오래도록 친구로 남아야 한다.
25		내 친구는 나를 의심하지 말고 믿어주어야 한다.
26		내 친구는 내 잘못된 점은 얘기해서 고쳐주려고 애써야 한다.
27		내 친구는 내가 실수나 잘못을 저질렀을 때 감싸주어야 한다.

번호	임시범주	세부 문항
28		내 친구는 나와 같은 남자(또는 여자)이어야 한다.
29		내 친구와 서로 관심분야가 같거나 비슷해야 한다.
30		내 친구와 나는 생각하는 방법이나 의견이 잘 맞는다.
31		내 친구와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서로 호흡이 잘 맞아야 한다.
32	4. 유사성	내 친구는 오랫동안 알고 지내온 사이여야 한다.
33		내 친구와 나는 키나 잘생긴 정도가 서로 비슷해야 한다.
34		내 친구와 나는 좋아하는 게임이나 운동, 취미가 같아야 한다.
35		내 친구와 나는 좋아하는 유명스타 혹은 연예인이 같아야 한다.
36		내 친구와 나는 가정환경이나 공부를 잘하는 정도가 비슷해야 한다.
37		내 친구와 나는 학교에서 혹은 방과 후에 같이 놀 수 있어야 한다.
38	5. 공유활동	내 친구는 나와 집이나 학원에 갈 때 같이 다녀야 한다.
39		내 친구와 나는 함께 게임이나 공부 등을 할 수 있어야 한다.
40		내 친구는 내가 슬프거나 힘들 때 위로해 줄 수 있어야 한다.
41	6. 정의성	내 친구는 내가 좋은 일이 생기면 같이 기뻐해줄 수 있어야 한다.
42		내 친구는 나를 진심으로 걱정해 줄 수 있어야 한다.
43		내 친구는 나를 진정으로 좋아해야 한다.
44		내 친구는 나를 인정하고 존중해주어야 한다.
45	7. 인정	내 친구는 내게 칭찬을 많이 해주어야 한다.
46		내 친구는 머리가 똑똑하고 공부도 잘해야 한다.
47		내 친구는 글씨를 예쁘게 쓸 수 있어야 한다.
48	8. 기능/ 능력	내 친구는 운동이나 싸움을 잘해야 한다.
49		내 친구는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아야 한다.
50		내 친구는 예술에 소질이 있거나 손재주가 있어야 한다.
51		내 친구는 조리있는 말솜씨를 가져야 한다.
52		내 친구는 항상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53		내 친구는 다른 사람들을 때려서는 안된다.
54		내 친구는 마음씨가 착해야 한다.
55		내 친구는 유머감각이 있어 사람들을 즐겁게 해줄 수 있어야 한다.
56	9. 외모/ 성향	내 친구는 얼굴이나 옷차림이 예쁘고 멋이 있어야 한다.
57		내 친구는 성격이 밝아 잘 웃어야 한다.
58		내 친구는 항상 친절하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줄 안다.
59		내 친구는 항상 성실한 태도를 지녀야 한다.
60		내 친구는 항상 약속을 잘 지켜야 한다.
61		내 친구는 다른 사람에게 양보를 잘 해주어야 한다.
62		내 친구는 다른 사람에게 욕을 하면 안된다.
63	10. 동반자 관계	내 친구는 나 이외의 다른 친구들과도 잘 어울릴 수 있어야 한다.
64		내 친구는 친구들 사이에서 평판이 좋아야 한다.
65		내 친구는 나와 다른 친구들의 관계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한다.

54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제13권 1호)

이렇게 도출된 예비척도 65문항에 대하여 전문가와 현장 특수교사들이 각 문항별 문항이해도, 문항적절성, 범주적합성, 평정가능성을 평정하였다. 그 결과는 <표 7>과 같다.

평정결과에 대하여 전문가 협의를 거쳐 하위 약 30%에 해당하는 총평균 1.56점 이하의 19문항들을 적절치 않은 문항으로 간주하여 척도에서 제거한 후 본조사용 예비척도(10범주 46문항)를 완성하였다.

<표 7> 예비척도 내용타당도 평정결과

번호	임시범주	문항이해도	문항적절성	범주적합성	평정가능성	총평균
1	1. 친밀감	1.89	1.89	2.00	1.00	1.63
2*		2.00	1.56	1.44	0.88	1.29
3*		2.00	1.89	1.78	1.00	1.56
4		1.67	1.78	2.00	1.00	1.59
5*		2.00	1.44	1.67	1.00	1.37
6		2.00	1.89	1.89	1.00	1.59
7		1.89	2.00	2.00	1.00	1.67
8		2.00	2.00	2.00	1.00	1.67
9*		1.89	1.78	1.67	1.00	1.48
10*		1.78	1.89	2.00	0.88	1.59
11*	2. 지원	2.00	1.22	1.56	0.88	1.22
12		2.00	2.00	2.00	1.00	1.67
13*		1.89	1.44	1.67	0.88	1.33
14		1.78	1.89	1.89	1.00	1.59
15		2.00	2.00	2.00	1.00	1.67
16		2.00	2.00	2.00	1.00	1.67
17*	3. 충실성	1.89	1.67	1.56	1.00	1.41
18*		1.89	1.78	1.67	1.00	1.48
19*		2.00	1.78	1.67	0.88	1.44
20*		2.00	1.89	1.67	1.00	1.52
21*		1.78	1.78	1.89	1.00	1.56
22*		2.00	1.78	1.67	1.00	1.48
23		2.00	2.00	2.00	1.00	1.67
24		1.89	1.89	1.89	1.00	1.59
25*		2.00	2.00	1.67	1.00	1.56
26		2.00	2.00	2.00	1.00	1.67
27		2.00	1.89	1.89	1.00	1.59

번호	임시범주	문항이해도	문항적절성	범주적합성	평정가능성	총평균
28	4. 유사성	2.00	2.00	2.00	1.00	1.67
29		1.78	2.00	1.89	1.00	1.63
30		1.78	1.78	2.00	1.00	1.59
31		1.67	2.00	1.78	1.00	1.59
32*		2.00	1.56	1.33	1.00	1.30
33		1.89	1.78	2.00	1.00	1.59
34		2.00	2.00	1.89	1.00	1.63
35		2.00	2.00	2.00	1.00	1.67
36		1.89	1.78	2.00	1.00	1.59
37		5. 공유활동	2.00	2.00	2.00	1.00
38	2.00		1.89	1.89	1.00	1.59
39	2.00		2.00	2.00	1.00	1.67
40	6. 정의성	2.00	2.00	1.89	1.00	1.63
41		2.00	2.00	2.00	1.00	1.67
42*		2.00	1.89	1.89	0.88	1.55
43		2.00	2.00	2.00	1.00	1.67
44	7. 인정	1.89	2.00	2.00	1.00	1.67
45*		2.00	1.67	1.67	0.88	1.40
46	8. 기능/능력	1.89	2.00	2.00	1.00	1.67
47*		2.00	1.78	1.78	0.88	1.48
48		2.00	2.00	2.00	1.00	1.67
49		2.00	2.00	1.78	1.00	1.59
50		2.00	2.00	2.00	1.00	1.67
51		1.78	2.00	2.00	1.00	1.67
52	9. 외모/성향	1.89	2.00	2.00	1.00	1.67
53		2.00	2.00	2.00	1.00	1.67
54		2.00	2.00	2.00	1.00	1.67
55		2.00	2.00	1.78	1.00	1.59
56		2.00	2.00	2.00	1.00	1.67
57		2.00	2.00	2.00	1.00	1.67
58		1.89	2.00	1.89	1.00	1.63
59		1.78	2.00	2.00	1.00	1.67
60		2.00	1.89	1.89	1.00	1.59
61		2.00	2.00	1.89	1.00	1.63
62		2.00	2.00	2.00	1.00	1.67
63	10. 동반자 관계	2.00	2.00	2.00	1.00	1.67
64*		1.67	1.78	1.78	0.88	1.48
65		1.89	2.00	2.00	1.00	1.67

* 표시된 번호는 내용타당도 검증을 통해 삭제된 문항들.

4. 본 조사 결과 및 분석

본 조사용 예비척도 46문항에 대한 1,027명의 학생들의 평정자료를 수집하여 다시 문항별로 평균과 표준편차 검토한 후, 상관분석을 통해 음의 상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상관, 그리고 유의확률 .2보다 작은 상관을 갖는 10문항들(친01, 친08, 충24, 유28, 유35, 공37, 정40, 동65, 외53, 외56)을 삭제하여 남은 36문항들을 최종척도 구성을 위한 탐색적 요인분석의 대상으로 결정하였다.

요인분석을 위해 먼저 수집한 자료의 요인분석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표준모형 적절성(Kaiser-Meyer-Olkin 척도)을 측정한 결과가 .904이었으며, Bartlett의 구형성 검증 결과 $X^2 = 6239.863(p < .00)$ 이 산출되어 요인분석에 적절한 자료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초 요인분석은 고유값(eigen value) 1을 기준으로 실시한 결과, 요인수가 7개 추출되었으나, 요인 내 문항들을 검토한 결과, 문헌탐색을 통해 임시로 정한 서로 다른 범주의 문항들이 한데 섞여 나온 경우가 많아 해석이 용이하지 않았다. 이에 요인수를 3~6까지 달리 지정하거나 고유값을 상향조정해 분석하면서 해석의 가능성을 탐색해보았다.

요인분석 시 고려사항으로는, 요인부하량(factor loading) 값이 해당요인에 순수하게 부합되도록 하면서, 모든 문항의 공통분(communality)이 적어도 .3이상 나오게 하는 가운데, 총설명분산 값을 가능한 최대화시키고, 한 요인 내 문항 수가 3개 미만인 경우는 배제하면서, 추출된 요인 내 문항들의 해석가능성을 높이는 것이었다.

최종적으로, 고유값 1, 주성분 추출, 프로맥스(promax) 회전의 요인분석을 통해 최종적으로 3요인 21문항의 척도를 도출하였다.

최종척도 21문항의 집단별 기초통계량은 <표 8>과 같다. 각 문항들의 평균과 표준편차의 범위를 검토한 결과 최종 척도의 문항들이 특정 학년이나 성에 편파적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8> 최종척도 문항의 집단별 평균 및 표준편차

임시범주/ 문항번호	초3남		초3여		초6남		초6여		중3남		중3여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친밀감4	3.38	1.32	3.75	1.01	3.28	1.10	3.60	1.04	3.38	0.89	3.69	0.72
친밀감7	3.41	1.30	3.67	1.16	3.25	1.02	3.47	1.05	3.07	1.03	3.51	0.81
지원16	3.80	1.29	4.02	1.12	3.52	1.10	3.75	1.01	3.30	0.97	3.78	0.86
충실성23	3.62	1.36	4.22	0.99	3.86	1.05	4.26	0.87	3.68	1.03	4.30	0.73
충실성26	3.51	1.37	3.66	1.15	3.24	1.09	3.53	1.09	3.29	1.08	3.54	0.86
충실성27	3.49	1.27	3.66	1.20	3.46	1.08	3.68	0.99	3.40	0.91	3.55	0.78
유사성33	2.21	1.27	2.14	1.25	2.59	1.21	2.61	1.10	2.33	0.99	2.13	0.85
유사성34	2.35	1.28	2.11	1.06	2.77	1.19	2.44	1.05	2.68	0.97	2.42	0.88
유사성36	2.43	1.34	2.45	1.24	2.70	1.14	2.53	1.11	2.37	1.00	2.07	0.96
공유활동39	2.85	1.34	2.96	1.34	3.24	1.13	3.15	1.12	3.14	0.96	2.84	0.88
정의성41	3.64	1.27	3.81	1.07	3.51	1.03	3.80	0.90	3.47	0.95	3.82	0.81
정의성43	3.45	1.33	3.77	1.15	3.41	1.11	3.78	1.04	3.34	0.91	3.78	0.90
기능/능력48	2.18	1.27	1.86	1.00	2.66	1.14	2.35	1.03	2.30	0.96	2.09	0.77
기능/능력49	2.22	1.31	2.16	1.21	2.66	1.13	2.54	1.02	2.46	0.92	2.37	0.92
기능/능력50	2.38	1.35	2.55	1.22	2.60	1.13	2.44	1.07	2.34	1.02	1.86	0.79
외모/성향52	3.45	1.25	3.39	1.32	3.09	1.15	2.98	1.05	2.88	0.93	2.86	0.93
외모/성향54	3.33	1.36	3.58	1.19	3.29	1.22	3.20	1.13	3.29	0.97	3.23	0.89
외모/성향58	3.70	1.29	3.94	1.19	3.50	1.03	3.52	1.09	3.36	0.95	3.30	0.86
외모/성향59	3.47	1.35	3.27	1.28	3.17	1.14	2.95	1.10	2.98	1.02	2.99	0.91
외모/성향60	3.71	1.30	4.06	1.06	3.56	1.12	3.71	0.98	3.35	0.95	3.51	0.97
외모/성향62	3.88	1.41	3.96	1.22	3.10	1.16	2.75	1.13	2.71	0.99	2.54	0.95

<표 9>에 제시된 요인분석의 결과를 보면 1요인에는 9문항이, 2요인에는 7문항이, 3요인에는 5문항이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변량은 각 29.4%, 12.4%, 7.38%이고 총설명변량은 49.1%이었다.

각 요인은 문항들의 예비범주와 문항 자체의 의미를 고려하여 전문가 검토를 통해 1요인은 친밀성, 2요인은 능력/유사성, 3요인은 도덕성으로 명명했는데, 임시 범주들의 예비요인과 세부 문항들과 비교해 볼 때 각 요인을 해석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9〉

요인행렬표*

문항 번호	문항내용	1요인	2요인	3요인
정43	내 친구는 나를 진정으로 좋아해야 한다.	.813		
지16	내 친구는 내가 아프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나를 도와주어야 한다.	.765		
총23	내 친구는 나와서 비밀을 잘 지켜주어야 한다.	.740		
정41	내 친구는 내가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같이 기뻐해 줄 수 있어야 한다.	.689		
친4	내 친구와 나는 서로 관심을 갖고 챙겨주어야 한다.	.642		
총26	내 친구는 내 잘못된 점은 얘기해서 고쳐주려고 애써야 한다.	.622		
외60	내 친구는 항상 약속을 잘 지켜야 한다.	.580		
친7	내 친구는 항상 내 말을 귀담아 들어주어야 한다.	.576		
총27	내 친구는 내가 실수나 잘못을 저질렀을 때 감싸주어야 한다.	.568		
기49	내 친구는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아야 한다.		.751	
유36	내 친구와 나는 가정환경이나 공부를 잘하는 정도가 비슷해야 한다.		.743	
유33	내 친구와 나는 키나 잘생긴 정도가 서로 비슷해야 한다.		.736	
유34	내 친구와 나는 좋아하는 게임이나 운동, 취미가 같아야 한다.		.724	
기50	내 친구는 음악이나 미술 등에 재주가 있어야 한다.		.693	
기48	내 친구는 운동이나 싸움을 잘해야 한다.		.683	
공39	내 친구와 나는 게임이나 공부 등을 함께 할 수 있어야 한다.		.530	
외62	내 친구는 다른 사람에게 고운 말을 해야 한다.			.784
외52	내 친구는 항상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747
외54	내 친구는 마음씨가 착해야 한다.			.728
외59	내 친구는 항상 성실한 태도를 지녀야 한다.			.642
외58	내 친구는 항상 친절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아야 한다.			.542
	고유치	6.15	2.60	1.55
	설명변량(%)	29.30	12.40	7.38
	누적변량(%)	29.30	41.70	49.08

* 요인부하량 .3 이상값만 표시함.

척도의 신뢰도 관련하여 살펴보면, 문항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척도 전체의 경우 .875이며, 하위요인별로는 친밀성이 .844, 능력/유사성이 .823, 도덕성이 .745가 나와 척도 전체와 각 요인에 속하는 문항들이 비교적 높은 내적 일관성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각 문항 삭제 시 문항내적합치도 결과는 <표 10>에 제시된 바와 같이 .865 ~ .874 사이로 나타나 척도 전체의 신뢰도를 저해하는 문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척도에서 각 문항이 응답자의 총점수준을 변별할 수 있는 정도인 문항변별도를 총점-문항 간 상관을 통해 살펴보면 <표 11>과 같다. 모든 문항의 값이 .42 ~ .65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일반적 기준 .3을 모두 충족하였다.

<표 10> 최종척도의 문항삭제시 문항내적합치도

임시범주/ 문항번호	항목이 삭제된 경우 척도 평균	항목이 삭제된 경우 척도 분산	수정된 항목- 전체 상관관계	항목이 삭제된 경우 Cronbach's α
친밀감4	62.48	139.198	.497	.869
친밀감7	62.61	135.954	.615	.865
지원16	62.30	136.661	.584	.866
충실성23	61.98	141.169	.413	.871
충실성26	62.54	138.596	.483	.869
충실성27	62.44	141.725	.393	.872
유사성33	63.66	139.746	.438	.870
유사성34	63.53	141.381	.386	.872
유사성36	63.58	140.104	.418	.871
공유활동39	62.97	137.931	.494	.869
정의성41	62.31	138.948	.525	.868
정의성43	62.41	138.071	.511	.868
기능/능력48	63.73	141.801	.378	.872
기능/능력49	63.57	140.793	.406	.871
기능/능력50	63.65	139.467	.455	.870
외모/성향52	62.88	142.243	.337	.874
외모/성향54	62.67	139.893	.426	.871
외모/성향58	62.44	136.452	.580	.866
외모/성향59	62.86	136.601	.549	.867
외모/성향60	62.32	137.680	.532	.867
외모/성향62	62.85	138.556	.408	.872

〈표 11〉 최종척도의 문항변별도

임시범주/ 문항번호	총점-문항 간 상관	임시범주/ 문항번호	총점-문항 간 상관	임시범주/ 문항번호	총점-문항 간 상관
친밀감4	0.555	유사성34	0.443	기능/능력50	0.507
친밀감7	0.651	유사성36	0.487	외모/성향52	0.420
지원16	0.616	공유활동39	0.543	외모/성향54	0.493
충실성23	0.462	정의성41	0.580	외모/성향58	0.609
충실성26	0.557	정의성43	0.576	외모/성향59	0.568
충실성27	0.449	기능/능력48	0.433	외모/성향60	0.567
유사성33	0.490	기능/능력49	0.495	외모/성향62	0.4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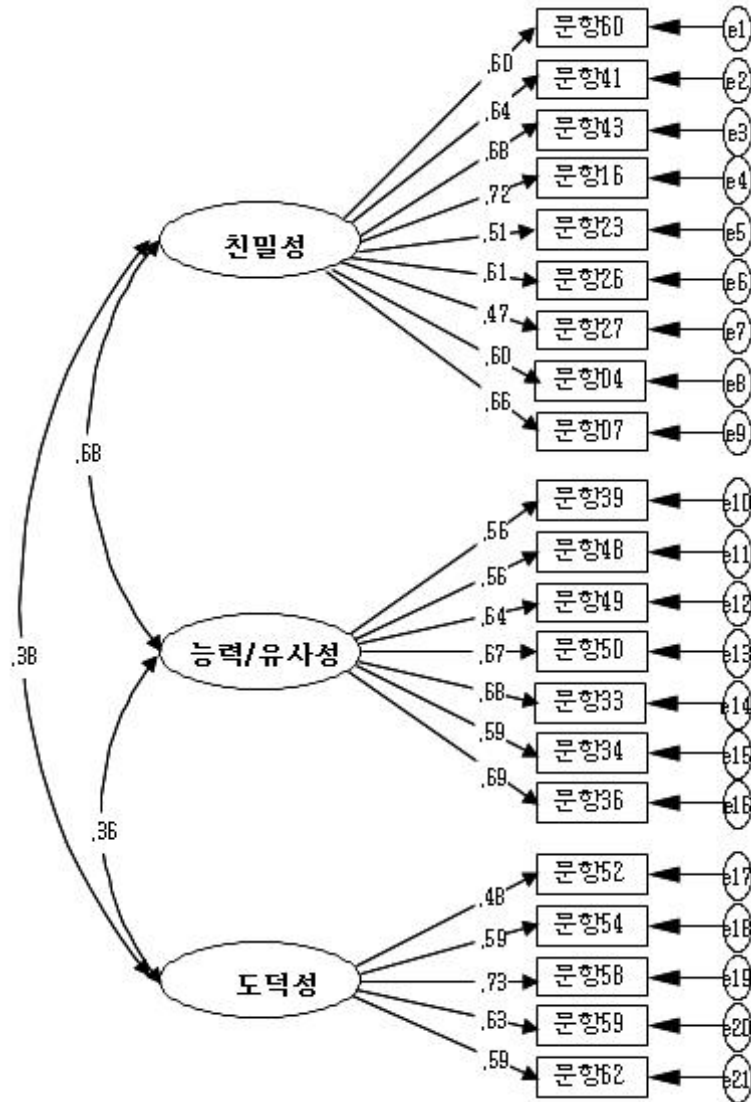
* 모든 문항은 유의수준 .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타당도 관련하여 구성타당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각 요인 간 상관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관계수는 친밀성-능력/유사성(.331), 능력/유사성-도덕성(.297), 친밀성-도덕성(.497)로 나타나 하위요인 간 유기적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의 구인을 형성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었다.

이어서 척도의 구인타당도를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이 때 미지수 추정에는 최대우도추정법(maximum likelihood method)을 사용하였다.

〈표 12〉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적합도 지수

CMIN/DF	NFI	IFI	CFI	RMSEA
4.809	.867	.891	.891	.061



<그림 1> 최종척도의 구조모형(표준화 계수)

<표 12>에 제시된 모형의 적합도 추정치들을 통해 이론모형이 표본자료와 얼마나 잘 합치되는지 살펴보면, 표준 χ^2 값인 CMIN/DF는 4.809로 관대한 기준 5 이하여서 적합한 모형으로 평가되었으며, 상대적합도 지수인 표준적합지수(Normed Fit Index: NFI)는 수용수준을 나타내는 절대적인 수치는 없지만 .867로서 수용할만한 적합도 지수 기준인 .900에 근접하였으며, 증분적합지수(Incremental Fit Index:

IFI)와 비교적합지수(comparative fit index: CFI)는 .891로서 좋은 적합도 지수 .90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절대적합도 지수인 근사오차평균자승의 이중근(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RMSEA) 값은 .061로 좋은 적합도 지수로 제시되는 .010 이하를 나타냈다. 교우기대감 척도의 확인된 경로모형은 <그림 1>과 같다.

I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우리나라 학교 환경에서 아동이 친구를 사귄 때 중요시하는 심리적 속성들을 측정하는 한국형 교우기대감 척도의 개발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 도구를 개발하기 위해 대상학생들로부터 진술문을 확보한 후 일련의 개발과정을 통해 최종 척도를 완성하였다.

최종척도는 3요인 21문항으로서 총설명변량은 49.1%이며, 신뢰도 관련하여 문항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875, 문항변별도는 모든 문항의 총점-문항 간 상관계수 값이 .42 ~ .65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신뢰로운 도구임이 밝혀졌다. 또한, 척도의 타당도 관련하여 구인 간 유의한 상관관계를 확인하였고, 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통해 본 척도가 전반적으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우리나라 아동이 친구를 사귄 때 중요시하는 심리적 속성들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본 척도는 적절한 심리측정적 속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척도의 개발결과 및 활용과 관련한 논의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척도의 결과를 기존의 외국 척도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기존의 척도들과 유사하게 나타나는 속성들이 있는데, 본 척도의 친밀성 영역 문항들은 Han과 Chadsey(2004)에서 사용한 척도의 관계특성 영역 문항들(비밀의 공유, 학교과제 돕기, 나에게 충실함 등)과 유사하며, 본 척도의 능력/유사성 영역 문항들은 역시 Han과 Chadsey(2004)의 개인특질 영역(운동을 잘하는 것,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 등) 그리고 상호적 활동 영역(운동이나 게임을 하는 것, 함께 영화를 보러 가는 것 등)의 문항들과 공유되는 부분이 많다. 이러한 결과는 Furman과 Bierman(1984)의 척도 문항들과 비교해도 친밀성 영역과 능력/유사성 영역 문항들은 공유하는 부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존의 척도들과 달리 본 척도에서만 도출된 영역은 도덕성 영역의 문항들(고운 말 사용, 겸손한 태도, 착한 마음씨, 성실한 태도, 친절과 배려)이다. 이 문항들은 우리 사회가 친구를 사귄 때는 물론 일반적으로 사람의 인성을 평가할 때 주

로 언급되는 것들인데 기존의 외국 척도들에서는 보기 어려운 내용들이다. 그렇지만 본 척도를 기존의 외국 것들과 직접 비교하는 것은 척도개발의 구체적 목적과 사용된 용어의 조작적 정의, 자료수집 대상의 사회경제적, 발달적 특성 그리고 문화권과 시대에 따라 유사한 심리적 속성에 대한 수사의 차이 등이 있을 수 있기에 단순히 외국아동과 달리 우리나라 아동만이 친구를 사귄 때 올바른 인성을 요구한다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비교문화 관점에서 심도있는 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본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 관련하여 살펴보면 문항내적합치도(Cronbach's α) 점수가 도덕성 영역에서 .745로 전체(.875) 및 친밀성(.844), 능력/유사성(.823)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다른 영역들의 문항들에 비해 '겸손한 태도', '착한 마음씨', '성실한 태도' 등의 문항들이 응답자들에게 다소 주관적으로 다가가 서로 다르게 해석될 소지가 있기에 나타난 결과가 아닌가 추측해 볼 수 있다. 또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타당도 검증에 있어서 표준적합지수(.867)가 수용할만한 지수(.900)에 못미친 점은 아쉬운 점이다. 이것은 요인분석 시 요인 부하량, 공통분 및 총설명분산 값들을 조정하면서 추출된 요인 내 문항들의 해석가능성을 높이는 과정에서 생긴 문제로 추측된다. 보다 높은 신뢰도와 타당도를 갖춘 척도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후속연구를 통해 보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척도 개발 시 주안점들 중의 하나는 초등학교 3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까지의 넓은 연령대를 대상으로 하는 척도를 개발하는 것이었다. 이 목적은 연구 결과의 <표 4>에서 보듯이 3개 학년 학생들의 진술문이 각 예비범주에 고르게 나타남으로써 하나의 척도가 되는 근거가 되었다. 하지만 초등학교 3학년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각 문항의 표현수준을 하향 조정하는 과정에서 중학교 3학년생들에게는 다소 유치하게 느껴질 수 있는 단어들이 사용되었다는 점은 단점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하나의 척도로 넓은 범위의 연령대를 모두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을 고려해보면 어느 정도 감수할 수 있는 부분이라 여겨진다.

다음으로, 본 척도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방형 설문과 본 조사 모두 수도권에 한정되어 실시되었기에 결과를 우리나라의 다른 지역으로 일반화하는데에는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둘째, 학생들이 척도에 응답 시 실제 친구보다는 친구를 사귄다는 가상적인 상황 하에서 평정하였기에 실제 특정한 친구를 사귄 때와는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Ray와 Cohen(1996)은 아동이 자신의 실제 친구보다는 가상적 친구를 평가할 때 더 높은 평정점수가 나타난다고 보고한 바 있다. 그러므로 가상의 친구를 사귄 때, 실제 친구에 대해 평가할 때, 장애아동을 친구로 가정했을 때 등 사용목적에 따라 아동의 반응기체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점수의 해석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후속연구와 관련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자는 본 척도를 개발함에 있어서 초기부터 장애아동의 사회적 통합을 위한 프로그램에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고 사회적 통합의 평가지표의 일부가 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본 척도를 개발하였다. 그러나 이후 본 척도를 사용해 조사 연구를 할 때에는 먼저 일반아동이 또래 일반아동을 친구로 사귄 때 어떤 심리적 특성을 보이는지 조사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일반아동의 또래에 대한 교우기대감의 윤곽이 드러나면 일반아동의 장애아동에 대한 교우기대감 조사를 통해 전체점수와 각 요인에서 서로 결과가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지 아니면 어떤 차이점들을 보이는지 비교,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척도는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초등 3학년과 6학년, 중 3학년생들을 대상으로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개발하였는데 전국단위의 체계적 표집을 통해 초, 중, 고등 각 집단별 기준점수를 확보한다면 지역별로 교우관계에 대한 아동의 심리적 특성 비교는 물론 발달시기에 따라 어떤 변화를 보이는지 파악할 수 있게 되고, 개별 아동의 점수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그 활용도가 크게 신장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학생들의 진술문을 토대로 구성된 본 척도의 요인과 문항 내용 그리고 점수자료들을 다른 문화권의 자료들과 심도있게 비교분석하는 노력이 전개된다면 올바른 교우관계 구축과 지도에 대한 논의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권오정 (2000). 중학생 교우관계의 유형, 형성요인 및 학교생활 적응도 분석. 석사학위 논문, 서원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나미 (2005). 아동의 정서능력과 친구관계의 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김완희 (2001). 초등학교 통합 교실에서의 장애 아동에 대한 일반 아동의 사회적 태도와 친구관계 분석. 석사학위 논문, 공주대학교 대학원.
- 문선영 (2008). 특수학급 장애학생의 교우 선호 요인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 박완희 (1998). 초등학교 아동의 교우관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관동대학교 교육대학원.
- 변민희 (1998). 중학생의 교우 관계 형성 요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 성기영 (2001). 중학생의 교우관계 형성요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신현기 (1995). 정신지체아동의 대인문제 해결 특성. 박사학위 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 이은혜, 고윤주 (1999). 학령기 아동을 위한 친구관계의 질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학회지**, 20(3), 225-241.
- 전 준, 신현기 (2007). 통합 상황의 장애 초등학생 친구관계의 질 연구.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8(3), 403-418.
- 정경미 (1992). 아동의 역할조망과 우정개념. 석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천홍숙 (2008). 학령기 아동의 또래수용과 역량지각에 따른 친구관계의 질. 석사학위 논문, 인하대학교 대학원.
- 한주환 (2001). 고등학교 학생의 교우관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Bercovici, S. (1981). Qualitative methods and cultural perspectives in the study of deinstitutionalisation. In R. H. Bruininks, C. E. Meyer, B. B. Sigford, & K. C. Lakin (Eds.), *Deinstitutionalisation and community adjustment of mentally retarded people* (pp. 133-144). Washington D.C., American Association on Mental Deficiency.
- Bigelow, B. J., & La Gaipa, J. J. (1980). The development of friendship values and choice. In H. B. Foot, A. J. Chapman, & J. R. Smith (Eds.), *Friendship and social relations in children* (pp. 15-44). New York Wiley.
- Bigelow, B. J. (1977). "Children's Friendship Expectations: A Cognitive Developmental Study". *Child Development*, 48, 246-253.
- Bigelow, B. J. (1983). Assessing children's friendship expectations: Supplementing the semistructured interview with picture sequences tasks. *Human Relations*, 36, 285-308.
- Biklen, D., Corrigan, C., & Quick, D. (1989). Beyond obligation: Students relations with each other in integrated classes. In D. Lipsky & A. Gartner (Eds.), *Beyond separate education: Quality education for all* (pp. 207-221). Baltimore, Md: Paul H, Brookes.
- Brown, B., Eicher, S., & Petrie, S. (1986). The Importance of Peer Group ("crowd") Affiliation on Adolescence. *Journal of Adolescence*, 9, 73-96.
- Fehr, B. (2004). Intimacy expectations in same-sex friendships: A prototypical interaction pattern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6, 265-284.
- Fisher, D. (1999). According to their peers: Inclusion as high school students see it. *Mental Retardation*, 37, 458-467.
- Forest, M. (1987). *More education/integration: A further collection of readings on the integration of children with mental handicaps into regular school system*. Downsview, Ontario, The G. Allam & Roeh Institute, York University.
- Friend, M., & Bursuck, W. (1996). *Including students with special need: A practical guide for classroom teachers*. Boston, A. Ellyn & Bacon.
- Furman, W., & Bierman, K. (1984). Children's conceptions of friendship: A multimethod study of developmental changes. *Developmental Psychology*, 20(5), 925-931.
- Furman, W., & Buhrmester, D. (1985). Children's perceptions of the personal relationships

- in their social networks. *Developmental Psychology*, 21, 1016-1024.
- Gaylord-Ross, R., & Haring, T. (1987). Social interaction research for adolescents with severe handicaps. *Behavioral Disorders*, 12, 264-275.
- Gaylord-Ross, R., Haring, T., Breen, C., & Pitts-Conway, V. (1984). The training and generalization of social interaction skills with autistic youth. *Journal of Applied Behavior Analysis*, 17, 229-247.
- Gonzalez, Y. S., Moreno, D. S., & Schneider, B. H. (2004). Friendship Expectations of early adolescents in Cuba and Canada.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5, 436-445.
- Grenot-Scheyer, M. (1994). The nature of interactions between students with severe disabilities and their friends and acquaintances without disabilities. *Journal of the Association for Persons with Severe Handicaps*, 19, 253-262.
- Grenot-Scheyer, M., & Coots, J., & Falvey, M. (1989). Developing and Fostering Friendship. In M. Falvey (Eds.), *Community-based Curriculum: Instructional Strategies For students with severe handicaps* (pp. 345-358). Baltimore, MD: Paul H. Brookes.
- Guralnick, M. L. (1981). Programmatic factors affecting child-child social interactions in mainstreamed preschool programs. *Exceptional Education Quarterly*, 1(4), 71-91.
- Hall, J. A., Larson, K., & Watts, A. (2009). *Satisfying friendship maintenance expectations: The role of friendship standards, sex, and gender*. Paper presented at the National Communication Association Conference in Chicago, IL.
- Han, K. G. (2003). *Exploring gender and grade level influences on the friendship expectations of young adolescents toward peers with disabilities*. Unpublished Doctorate dissertation, University of Illinois, Urbana-Champaign.
- Han, K. G., & Chadsey, J. G. (2004). The influence of Gender patterns and grade level on friendship expectations of middle school students toward peers with severe disabilities. *Focus on Autism and Other Developmental Disabilities*, 19(4), 205-214.
- Haring, T. G., Breen, C., Pitts-Conway, V., Lee, M., & Gayload-Ross, R. (1987). Adolescent peer tutoring and special friend experiences. *Journal of the Association for Persons with Severe Handicaps*, 12, 280-286.
- Hartup, W. W., & Stevens, N. (1997). Friendships and adaptation in the life course. *Psychological Bulletin*, 121(3), 355-370.
- Helmstetter, E., Peck, C. A., & Giangreco, M. F. (1994). Outcomes of interactions with moderate or severe disabilities: A statewide survey of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the Association of Persons with Severe Handicaps*, 19, 263-276.
- Hendrickson, J. M., Shokoohi-Yekta, M., Hamre-Nietupski, S., & Gable, R. A. (1996).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perceptions on being friends with peers with

- severe disabilities. *Exceptional Children*, 63, 19–28.
- Horner, M. D. (1990). *Attitudes toward handicapped students: professional, peer, and parent reaction*.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Kennedy, C. H., & Itkonen, T. (1994). Some effects of regular class participation on the social contracts and social networks of high school students with severe disabilities. *Journal of the Association for Persons with Severe Handicaps*, 19, 1–10.
- La Gaipa, J. J. (1979). “A developmental study of the meaning of friendship in adolescence.” *Journal of Adolescence*, 2(3), 201–213.
- Lutfiyya, Z. (1988). *Other than Clients: Reflection on relationships between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typical people*. Syracuse, New York: Syracuse University.
- McGee, J. J., & Menolascino, F. J. (1987) *Gentle Teaching: A Non-Aversive Approach to Helping Persons with Mental Retardation*. New York: Human Science Press, Inc.
- Mckinney, J. P., Fitzgerald, H. E., & Strommen, E. A. (1982). *Developmental psychology: The adolescent and young adult*. Homewood, IL: Dorsey Press.
- Mendelson, M. J., & Aboud, F. E. (1999). Measuring friendship quality in late adolescents and young adults: McGill friendship questionnaires. *Canadian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 31, 130–132.
- Mikkelsen, G. (1992). *Building a welcoming classroom*. Minneapolis: Minnesota Inclusive Education Technical Assistance Program. College of Education. University of Minnesota.
- Murray-Seegert, C. (1989). *Nasty girls, thugs, and humans likes us, Social relation between severely disabled and nondisabled students in high school*. Baltimore, MD: Paul H. Brookes.
- O’Connell, M. (1988). *The Gift of Hospitality: Opening the doors of community life to people with disabilities*. Illinois: Centre for Urban Affairs and Policy Research, Northwestern University.
- Odom, S. L., Hoyson, M., Jamieson, B., & Strain, P. S. (1985). Increasing-handicapped preschoolers’ peer interaction: Cross-setting and component analysis. *Journal of Applied Behavior Analysis*, 18, 3–17.
- Peck, C., Donaldson, J., & Pezzoli, M. (1990). Some benefits nonhandicapped adolescents perceive for themselves from thieer social relationships with peers who have severe handicaps. *Journal of The Association for Persons with Severe Handicaps*, 15, 241–249.
- Perske, R. (1987). *Why friendship?* Presentation made to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f The Association for Persons with Severe handicaps, Chicago, IL.
- Ray, G. E., & Cohen, R. (1996). Children’s friendships: Expectations for prototypical versus actual best friends. *Child Study Journal*, 26(3), 209–228.

- Schaps, E., & Solomon, D. (1990). Schools and classrooms as caring communities. *Educational Leadership, 48*(3), 38-42.
- Schnorr, R. F. (1997). From enrollment to membership: "Belonging" in middle and high school classes. *Journal of The Association for Persons with Severe Handicaps, 22*, 1-15.
- Stainback, S., & Stainback, W. (1990). *Support networks for inclusive schooling: Interdependent integrated education*. Baltimore: Paul H. Brooks.
- Stainback, W., & Stainback, S. (1987). Facilitating friendships. *Education and Training in Mental Retardation, 22*, 18-25.
- Strully, J., & Strully, C. (1985). Friendship and our children. *Journal of The Association for Persons with Severe Handicaps, 10*, 224-227.
- Strully, J., & Strully, C. (1989). Friendships as an educational goal. In S. Stainback, W. Stainback, & M. Forest (Eds.), *Educating all students in the mainstream of regular education* (pp. 59-68). Baltimore: Paul H. Brookes.
- Sullivan, H. S. (1953). *The interpersonal theory of psychiatry*. New York: Norton.
- Tringo, J. L. (1970). The hierarchy of preference toward disability groups.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4*, 295-306.
- Veoltz, L. M. (1980). Children's attitudes toward handicapped peers. *American Journal of Mental Deficiency, 84*, 455-464.
- Yuker, H. E., Block, J. R., & Campbell, W. J. (1960). *A scale to measure attitudes toward disabled persons* (Human Resources Study No. 5). Albertson, NY: Human Resources Center.
- Zarbatany, L., Conley, R., & Peppers, S. (2004). Personality and gender differences in friendship needs and experiences in preadolescence and young adulthood.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8*, 299-310.

Development Study of Korean Friendship Expectation Scale

Nam, Kyoung Uck

Dankook university

Shin, Hyun Ki

Dankook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Korean Friendship Expectation Scale. The students participated for this scale development are 3rd, 6th students in primary school and 3rd students in middle school.

For this research, literature review was first done to develop preliminary categories and their items. Then, through open survey from 325 students, 2,679 statements were collected. These data were the main source for scale development. After 2 stage coding procedures and content validity test preliminary scale(64items) was developed.

From 1,027 students, main survey data were collected and employed exploratory factor analysis for final scale. Finally the Korean Friendship Expectation Scale consisted of 3 factors and 21 items was developed.

The authors provided information about reliability and validity data.

This scale can be utilized for friendship related investigation of general students and has implication for social inclusion of students with disabilities in inclusive school environment(for example, a part of evaluation index for social inclusion).

Finally, the authors provided some discussions, limitations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Key Words : friendship expectation, scale development, social inclusion, item development, factor analysis

논문 접수: 2012. 01. 25 심사 시작: 2012. 02. 10 게재 확정: 2012. 03. 16